

김정일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후계체제의 위기

고명균(대신중학교)

197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김정일은 후계자 결정 단계부터 경쟁자들 사이에서 거세공포를 겪었고, 후계자 내정 이후에는 후계체제 구축의 속도 문제로 김일성의 견제를 받았다. 후계자로서 권한 확대를 위한 아버지와 동일시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김동규 사건은 김일성의 의중을 파악한 부주석 김동규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을 비판한 친위쿠데타였다. 김동규 사건 이후 김정일은 자중했고, 후계자로서 위상과 역할은 다소 위축되었다. 하지만 김정일의 자숙기간은 길지 않았다. 당시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 변화는 김정일의 지도력을 필요로 했다.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경제 사업에서의 당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김정일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김일성도 인정하였다. 자숙기간 동안 당과 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온 김정일은 노련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이 연구는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김동규 사건으로 촉발된 위기와 위기 극복의 전 과정을 김정일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연결 지어 살펴보았다.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과정은 내면 깊이 자리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음을 밝혔다.

주제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거세공포, 동일시, 후계체제, 유일사상체계, 당중앙, 김동규 사건

1. 서론

북한현대사에서 1970년대는 김일성 유일사상체계가 공고화되고, 김정일 후계체제가 구축되는 시기이자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폐쇄성과 봉건성이 고착화되는 기간이었다.¹⁾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규정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이 김정일의 주도하에 마련되었다는 사실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속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이 시기 김정일은 아버지의 신임을 얻어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동시에 후계자의 ‘유일적 지도’를 북한체제 전반에 착근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령의 절대적 권위를 떠받들면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는 과정은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이질적 작용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벌어질 개연성이 컸다.

1960년대 말부터 후계경쟁구도 속에서 단련된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으로 선출되며 후계자로 내정되었다. 그러나 후계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권력이양 과정이 평화롭고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이제는 후계자로의 인정 여부가 아닌 권력승계의 속도와 방법상의 문제들이 김정일을 위협했다. 1976년 6월에 벌어진 ‘김동규 사건’은 권력 중심부에서 권력 승계의 속도와 방법을 둘러싼 갈등상황이 노출된 대표적 사례이다.²⁾

1) 환갑이 넘은 김일성의 건강과 주체위업의 계승 및 완성을 위해 1970년대 초부터 후계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 주장이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후계자문제와 조선』(도쿄: 구월서방, 1991), 64~65쪽.

2) 부주석 김동규가 1976년 6월 정치위원회에서 김정일이 주도하던 간부정책과 계급정책,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 대해 비판하면서 야기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김정일』(서울: 중앙일보사, 1994), 113쪽.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나타났던 경쟁과 갈등국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의 문제에 대해 천착(穿鑿)하였다. 기존의 연구들 대다수가 일부 탈북인사의 증언에 기초하여, 후계체제 구축 과정을 김정일의 당권장악 및 군대 내 영향력 확대 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³⁾ 그 결과 김동규 사건은 김정일 후계체제하에서 금세 진압되어버린 ‘찰잔 속 태풍’으로 치부되었고,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와 달리 김동규 사건에 대해 김정일의 후계 구축작업에 일정정도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하는 연구들도 있다.⁴⁾ 하지만 사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만 바뀌었을 뿐 사건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은 부족하다.

증언에 의존한 사건사(事件史) 중심의 서술은 특정인사의 주관적 해석이 지나치게 과잉 대표된다는 문제점과 함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관련된 사건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김일성-김정일 부자간의 갈등구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요 인사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식매체에 실린 내용, 당시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조성된 위기의 배경과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 위의 책, 112~118쪽;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서울: 을유문화사, 2000), 194~195쪽;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과주: 한울아카데미, 2003), 68~69쪽.

4)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506~507쪽;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서울: 선인, 2005), 293~294쪽; 최진욱, 『김정일정권과 한반도장래』(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5), 49~50쪽;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간부정책을 중심으로』(서울: 선인, 2007), 133~134쪽.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은 파벌 간 권력투쟁이나 라이벌에 의한 권력도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부자간 권력세습이 이루어졌다는 점, 김정일이 후계자로 인정받기 얼마 전까지 계모 김성애의 견제를 받았고, 삼촌 김영주, 이복동생 김평일과 혈육 간 후계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는 점,⁵⁾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 위한 김정일의 치열한 노력이 전개되었다는 점이 기존의 권력 투쟁과 구분되는 주요 특징이다.

세력과 파벌을 경계로 갈라섰던 기존의 권력투쟁과 달리 권력승계를 둘러싼 부자간의 긴장과 갈등, 혈육과의 경쟁구도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주관적 인식과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김정일의 행동과 태도,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적 분석도구가 요구된다. ‘권력분점’과 ‘권력공유’의 대상인 아버지와의 갈등 국면을 조망하기 위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개념을 활용한 분석틀을 적용하고자 한다.

권력 승계기간 김정일의 심리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접목시켜 서술한 사례들 대다수가 김정일의 왜곡된 신경증적 행태와 성격묘사 등 비정상적인 심리 분석에 치중하였다.⁶⁾ 그 결과, 권력승계 과정에

5) 김정일이 김영주, 김평일과 후계경쟁을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도 존재한다. 건강이 안 좋았던 김영주는 김정일의 후견인이자 조력자 역할에 충실했으며, 김평일은 당시 20대 초반으로 김정일과 후계경쟁을 벌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론의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후계자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던 김정일의 입장에서 혈육인 김영주와 김평일은 라이벌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삼촌 김영주는 당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실력자였고, 이복동생 김평일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김성애의 아들이었다. 김영주와 김평일은 후계경쟁에 대한 본인들의 의지나 객관적 불리함과는 상관없이 김정일의 ‘주관적 인식’ 안에 경쟁자로 설정되었다.

서 나타난 권력지형의 변화,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데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 개인의 정치적 성장사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을 접목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김일성-김정일 부자간 갈등의 근원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을 통해 유추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승계과정에서 김정일이 직면한 위기의 배경과 성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그려볼 것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개인의 정신병리적 현상을 진단하는 도구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콤플렉스의 ‘발현’과 ‘극복’, ‘현실 적용’ 및 ‘행동 수정’ 과정을 후계권력 지형의 변화,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결부지어 폭넓게 고찰할 것이다.

2.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오이디푸스적 해석

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적용

소포클레스(Sophocles)의 신화 『오이디푸스 왕(Oedipus Rex)』에서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비극적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다. 신화 속 오이디푸스는 신과 사제의 주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파멸에 이르게 된다.⁶⁾ 오이디푸스의 비극이 박제된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철학적

6) 조영환,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서울: 지식공작소, 1996), 148~159쪽; 송봉선, 『김정일과 후계』(서울: 한국교육문화원, 2008), 260~262쪽.

7) 정지은, “철학자-남성의 정체성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재해석,” 『한국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17권 2호(2015), 85쪽.

논쟁의 소재가 되어온 데에는 비극적 운명과 이에 대항하는 인간이라는 상투적 서사구조를 뛰어넘어 인간 내면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인간 오이디푸스의 내면에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이라는 비극적 운명을 기꺼이 용인할 여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 비극의 소재인 오이디푸스를 지속적으로 불러내어온 이유다.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오이디푸스 신화에 등장하는 ‘친모에 대한 성애(性愛)’,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 극복의 심리’를 인간의 무의식에 내재된 보편적 성향으로 이론화했다. 프로이트는 유아기 남자아이가 갖는 친모성애와 아버지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명명하였다.⁹⁾ 리비도(Libido) 경향의 일부로 표출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가 개개인의 성격과 심리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1970년대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간 갈등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 김정일이 처한 상황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분석틀을 통해 유추하는 것은 매우 적실하다. 당시 김정일의 정치적 리더십은 성숙 전 ‘유아기’ 단계로서 수령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했다. 김정일이 자신의 독자적 정치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권위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유아기 아동의 성적 발달과 성격형성 과정을 오이디푸스 신화에 관련지어 고찰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방법은 김정일의 가정사를 배경으로 후계구축 및 정치적 리더십형성과정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친모 김정숙에

8) 프로이트(Sigmund Freud), 『꿈의 해석 上』, 김정일 옮김(서울: 열린책들, 2000), 346~347쪽 참조.

9) 프로이트 지음, “자아와 이드” 『쾌락 원칙을 넘어서』, 박찬부 옮김(서울: 열린책들, 1998), 119~120쪽.

<표 1>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김정일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발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현 단계	단계별 김정일의 태도와 행동
친모성에 단계	‘김정숙 불러내기’ ¹⁰⁾ 상황과 ‘친모 동일시 정서’ ¹¹⁾ 강화.
거세공포 단계	김성애의 견제 속에서 후계자 결정 권한을 가진 아버지 에 대해 존경과 두려움의 양가감정 표출.
동일시를 통한 가치 내면화 단계	수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계’ 를 동일시하고자 노력.
콤플렉스의 잔존과 행동수정 단계	후계체제의 위기 도래 및 행동수정을 통한 위기 극복.

대한 김정일의 강한 애착, 계모 김성애의 견제와 이복동생 김평일과
의 후계경쟁 구도 속에서 겪은 불안감, 친모의 빈자리를 김성애로 채
우려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의 ‘양가감정(兩價感情)’은 오
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친모에 대한 애착이
경쟁자인 아버지에 의해 좌절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거세공포
(castration anxiety)’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일시(identification)’ 과정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발현 단계별 김정일의 태도와 행동으로 구분하
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현에서 극복까지의 과정
을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모친에 대한 성애가 강화되는 ‘친모
성애’ 단계이다.¹²⁾ 어머니에 대해 지배와 점유의 ‘남근적 욕망’을 드

10) ‘김정숙 불러내기’는 1968년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제8권에 “김정숙
동지를 회상하며”가 실리고, 1969년 김정숙의 생일과 사망일에 추모기사가
『로동신문』에 등장하는 상황을 일컬어 필자가 지칭한 것이다.

11) 프로이트는 발달단계 초기에 이루어지는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원초적 동일시’
또는 ‘1차적 동일시’라고 명명하였다. 이때 어머니는 대상으로서, 아이와 분리
되지 않은 원초적 관계이며 성별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박찬부, “오이디푸스를
넘어서-프로이트에서 라캉으로,” 『비평과 이론』, 제12권 1호(2007), 6쪽.

12) 오이디푸스 시기의 ‘성적애착’은 성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되고, 아이

러내며, ‘성별화’되지 않은 어머니와의 동일시 정서를 강하게 갖는 원초적 단계이다. 1960년대 말 항일빨치산 활동에 대한 집중 조명과 함께 김정숙 불러내기가 진행되는 분위기¹³⁾ 속에서 친모 김정숙에 대한 김정일의 동일시 정서는 더욱 강화되었다. 김정일이 지닌 친모 동일시 정서는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의 심정에 기반한 원초적 정서였다. 김정일에게 친모 김정숙은 ‘기억 속 대상’이 아니라 외롭고 불안한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나르시시즘(Narcissism)의 원천’이었다.

둘째,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아버지에 대해 ‘증오’와 ‘존경’, ‘두려움’과 ‘의존’의 상반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세공포’ 단계이다.¹⁴⁾ 김정일은 계모 김성애의 견제를 받고 있었고, 삼촌 김영주, 이복동생 김평일과의 후계경쟁구도 속에 놓여있었다. 후계경쟁구도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김정일은 후계자 지위를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 시기 김정일은 후계자 결정권을 지닌 아버지에 대해 존경과 두려움의 양가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셋째, 아버지와 동일시를 통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동일시를 통한 가치 내면화’ 단계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

가 어머니의 애정을 갈구하면서 어머니의 육체에 집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김석, 『프로이트&라캉 무의식에로의 초대』(과주: 김영사, 2010), 64쪽.

- 13) 김명화, “김정숙동지를 회상하며,”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110~123쪽; “열렬한 공산주의투사이며 강의한 녀성혁명가인 김정숙동지,” 『로동신문』, 1969년 9월 22일; “생명보다 귀중한 혁명조직을 위하여— 김정숙동지에 대한 회상기중에서,” 『로동신문』, 1969년 10월 1일; “청봉밀영에서— 김정숙동지를 회상하며,” 『로동신문』, 1969년 12월 24일.
- 14) 프로이트 지음, “집단 심리학과 자아분석,”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 옮김(서울: 열린책들, 2002), 120쪽.

하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자아(ego)’에 유입되면서 ‘이드(id)’를 통제하게 된다. 친모에 대한 성적 충동이 억제되고 다듬어지게 되면서 사회적 권위와 질서를 수용하는 단계이다.¹⁵⁾ 김정일은 수령 중심의 ‘유일사상체계’ 구축 작업을 주도하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 자신의 정치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극복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콤플렉스의 잔존과 행동수정’ 단계를 추가하였다. 친부와의 동일시 노력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던 거세공포가 다시 부상(浮上)하면서,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를 적극 수용하고 자신을 낮추는 방향으로 행동수정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수령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구축하려는 김정일의 동일시 노력은 자칫 수령의 지위를 대체하거나 위협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불안요인이었다. 김정일의 동일시 노력은 수령 중심의 가치체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보다 아버지의 권위를 대체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치체계의 내면화’는 주변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상호작용과정’이라는 점에서 ‘김동규 사건’의 의미에 대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에 대한 부주석 김동규의 비판은 동일시 과정이 기대만큼 순탄치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근거다. 김

15) 프로이트는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어머니를 ‘대상선택(object-choice)’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남자 아이는 남성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문화적 주체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박찬부, “오이디푸스를 넘어서-프로이트에서 라깡으로,” 7쪽.

정일은 수령의 가치체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맞았고, 이를 극복해나가며 아버지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정치적 리더십을 구축하였다. 지금까지 간단히 언급한 김정일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발현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 입각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현과 김정일 후계체제의 위상 변화

(1) 친모성에 및 거세공포 단계

김정일의 성장 과정에서 친모성에 단계와 거세공포 단계는 중첩되어 나타났다. 어려서 모친을 잃고 계모와 이복동생들 속에서 자라야 했던 김정일에게 거세공포는 숙명이었고, 공포감이 커질수록 친모 김정숙에 대한 애착은 강화되었다. 친모에 대한 김정일의 원초적 애착은 ‘극복’과 ‘기억’의 대상이 아닌 ‘위안’과 ‘동일시’의 기제로서 성장 과정 내내 유지, 강화되었다. 본처의 빈자리를 김성애로 채우려는 김일성의 태도는 김정일에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 ‘친모 동일시 정서’를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김정일에게 두드러졌던 친모 동일시 정서의 근간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듯이 자신의 처지도 안전하지 않고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친모 동일시는 김정숙을 자신의 기억 속으로 박제화하려는 아버지에 대한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였다.

연상의 유부녀 성혜림과의 동거는 친모에 대한 그리움과 동일시의 정서가 표출된 일례다. 1960년대 말, 김정일은 작가 이기영의 며느리였던 성혜림과 극비리에 동거를 시작하였다. 사회 전반에 여전히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관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아버지의 눈초리를 피해 연상의 유부녀와 가정을 꾸리는 모험을 선택한 이유는 무

엇이었을까? 이러한 상황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의 증언을 통해, 성혜림에게 투영된 친모 동일시 정서가 주요한 이유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김정숙과 닮은 성혜림의 외모와 분위기, 덕스러운 여인의 정숙함과 새색시의 풍성한 젊음이 불러일으키는 모성의 향수는 김정일에게 ‘안정’과 ‘위로’의 인식처를 제공하였다.¹⁶⁾ 성혜림은 불안과 고독에 헤매던 김정일을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감싸주었고, 그의 방황과 일탈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해해주었다.¹⁷⁾

김정일의 내면에 자리 잡은 친모 동일시 정서는 1960년대 말 김정숙 불러내기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증폭되었다. 북한사회에서 한동안 잊혀졌던 김정숙을 불러내게 된 이유를 단지 항일혁명동지에 대한 숭모(崇慕) 차원이라고 보는 것은 표면상의 이유만을 중시하는 단선적 사고다. 김정숙 불러내기의 주도자들이 김일성의 현처 김성애의 불편한 심기와 반응을 감수해야 했다는 점을 떠올려볼 때, 특별한 입장이거나 이해관계가 아니고서는 괜한 오해를 불러올 일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정숙 불러내기의 배경으로 김정일의 의중,¹⁸⁾ 김정일 후계자 추대를 지지하는 일부 항일빨치산 원로들의 입김이 반영되었

16) 성혜랑, 『등나무집』(서울: 지식나라, 2000), 366~367쪽 참조.

17) 위의 책, 371쪽 참조.

18) 북한에서의 언론활동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지시와 통제 하에서 이중, 삼중의 검열을 거친다. 『로동신문』의 경우, 각 부서에서 작성한 기사는 각 소속부장, 편집부국장, 편집국장, 부주필, 주필 등 단계적 검열을 1차적으로 실시하고, 2단계로 내각 직속 출판지도총국 신문과의 검열을 받는다. 3단계로 당 선전선동부 출판검열총국의 최종 검열을 받는다. 1969년 김정숙의 생일과 사망일을 기념하는 기사들이 로동신문에 대대적으로 실리게 된 배경에 당시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는 당의 언론사업 및 선전선동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김정일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고유환 외, 『북한 언론 현황과 기능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80~81쪽.

을 가능성을 떠올려볼 수 있다.¹⁹⁾ 김정숙 불러내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친모 동일시를 통해 항일빨치산의 후예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항일빨치산 원로들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김성애와 이복동생 김평일에게 후계자 지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김정은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했다. 김일성이 후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자 김정일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사실이지만²⁰⁾ 김정일이 후계자로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²¹⁾ 김일성이 환갑을 앞두고 있었지만 아직 정정했고,²²⁾ 외모와 성격에서 김일성을 쫓 빼닮은 이복동생 김평일의 존재는 김정일에게 가장 큰 위협요인이었다.²³⁾ 1969년 김성애가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에 오르며 권력무대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
- 19) 김정은에 대한 일부 항일빨치산 원로들의 지지는 그들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낙점했기 때문이 아니라 김일성의 의중이 김정일을 향하고 있으며,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 판단이 주요했다.
 - 20) 김정은은 1960년 8월 김일성과 군부대 시절에 나섰고, 1964년 6월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외국문출판사, 『위인 김정일』(평양: 외국문출판사, 2012), 146쪽.
 - 21) 김정은은 후계자로 공식 인정받은 후인 1975년에야 김정남의 존재를 김일성에게 알렸을 정도로 자신의 후계자 등극에 부담을 줄 만한 행동들을 극도로 삼갔다. 이한영, 『김정일 로열패밀리』(서울: 시대정신, 2004), 39쪽; 봉화진료소를 방문한 김성애를 피해 입원 중이던 생후 4개월의 김정남을 포대기에 싸서 병원 밖으로 도망쳤던 성혜림 일가의 에피소드에서도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혜림, 『등나무집』, 372~374쪽.
 - 22) 1972년 5월 평양에서 비밀리에 김일성과 만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당시 미중앙정보국 한국지국장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에게 전한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은 강인한 체력에 강력한 통치자로서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항일빨치산 원로들이 김일성의 환갑을 앞두고 고령인 김일성의 건강 문제를 염려해 후계자 결정을 서둘러 건의했다는 주장은 후계체제를 세우기 위한 명분이 될지 언정 후계체제 구축의 실질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도널드 그레그 지음, 『역사의 파편들』, 차미례 옮김(과주: 창비, 2015), 215쪽.
 - 23)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간부정착을 중심으로』, 112쪽.

1971년 전국농업대회에서 김일성이 공개적으로 “김성애의 얘기는 내 얘기와 마찬가지로.”라고 선포함에 따라 김성애는 수령에 버금가는 권세를 행사하게 되었다. 김성애의 부상으로 김정숙의 흔적은 철저히 지워졌다.²⁴⁾

김성애의 견제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의 양가감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결가지’에 대한 증오심으로 치환되어 축적되었다.²⁵⁾ 반면에 표면상 태도와 행동에서는 유일사상체계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거세공포를 극복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어 후계자 지위를 확고히 다지려 했다. 내면 깊숙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의 마음이 차올랐지만, 이성적 ‘자아(ego)’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의존’의 정서를 표현하도록 명령함으로써 ‘후계지위 획득’이라는 실리를 추구하도록 이끌었다.

(2) 동일시를 통한 가치내면화 단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근원인 ‘리비도 경향’은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동일시 과정을 통해 기존의 가치체계를 내면화시킴으로써 다듬어지고 약해지기 마련이었다. 김정일은 1960년대 후반 당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유일사상체계 구축의 선봉에 나섰다. 1966년 당조직지도부 중앙지도과 책임지도원으로

24) 김성애의 권력이 득세했던 여맹위원장 취임 이후, 남동생 김성갑이 부정축재 혐의로 숙청당하고 김성애의 월권행위가 엄격히 규제받기 시작하는 1973년에 이르기까지 김정숙에 대한 언급은 자취를 감췄다. 최진욱, 『김정일 정권과 한반도 장래』, 48쪽.

25) 고영환, 『북한 외교관 고영환이 밝히는 평양25시』(서울: 고려원, 1992), 99~111쪽.

임명된 후, 1967년 5월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갑산과 숙청에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²⁶⁾ 이후 당선전선동부 문학예술 지도과장을 맡아 문학예술 분야에 퍼져있던 갑산과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지도 및 검열 사업을 주도하였다. 1969년 초에는 당선전선동부 부부장에 올랐고, 이후 당 선전사업을 사실상 장악하였다.²⁷⁾

방송, 영화, 연극,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학예술 전 분야에 걸쳐 김일성 혁명전통 및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체계와 혁명적 규률”을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김정일의 노력은 1971년 혁명가극 <피바다>의 성공으로 꽃을 피웠다. 김일성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우리식의 가극을 창조하였다”라고 치하하였고,²⁸⁾ 김정일의 업적을 높이 산 항일빨치산 원로들은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데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²⁹⁾

26) 연고주의 인사, 봉건 유교사상 주입, 유일사상체계 훼손 등 갑산과의 문제점은 제4기 1967년 15차 전원회의 이전에 이미 김정일에 의해 포착되고 있었다. 박금철에 대한 우상화를 다룬 연극 ‘일편단심’의 내용적 하자를 발견한 것도 김정일이었다.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151~155쪽.

27)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서울: 토지, 1999), 128~129쪽.

28) 김정일, “혁명가극 ‘피바다’는 우리 식의 새로운 가극·혁명가극 ‘피바다’ 창조성 원들 앞에서 한 연설(1971년 7월 17일),” 『김정일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98~99쪽.

29) 김정숙의 유언, 항일빨치산 혈통 등을 고려했을 때, 항일빨치산 원로들이 후계자 결정 문제에서 김정일에게 마음이 기울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김일성의 의중이 김평일이나 김성주에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마련이었다. 김정일의 노련함은 김일성의 의중과 상관없이 자신을 후계자로 건의할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 놓았다는 데 있다.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절대화에 앞장섬으로써, 항일빨치산 원로들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목함에는 어떤 사심도 없으며, 유일사상체계에 대한 절대적 충성에 따른 판단이라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김정일은 누구보다도 영민하게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후계구도를 설계해나갔다.

한편, 정영철은 김정일이 1970년대 초부터 김일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항일빨치산 원로들에 의해 후계자로 추대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⁰⁾ 항일빨치산 원로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후계자 문제에 김일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했을 리 만무하다. 종파주의 및 군벌관료주의 문제만큼이나 민감한 후계자 문제에 선불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누군가의 편에 섰을 경우 엄청난 화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후계자의 최종결정권자가 김일성이었다는 점, 김일성이 주요 경쟁 세력에 대해 벌인 무자비한 숙청을 지근거리에서 목격한 장본인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판단해볼 때, 상황별로 김일성의 의중을 헤아려 입장을 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황장엽도 항일빨치산 1세대들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적극 지지했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며, “김일성이 빨치산 원로들의 입장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³¹⁾ 김일성은 김정일의 어린 나이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후계자 결정을 계속 보류해오다가 1973년 이후 김정일에게 후계자 지위를 세습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³²⁾

30)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200쪽.

31)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시대정신, 2006), 206~207쪽.

32) 당시 김일성은 자신의 후계자로 김정일 외에 동생 김영주, 혁명1세대 주요 인물들을 염두에 두고 고민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남 김정일의 경우 1954년 생으로 김정일에 비해 12살이나 어린 터라, 후계 논의가 본격화되던 1970년대 초반에 김정일을 제치고 후계자 지위에 오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객관적인 예상과 김정일 개인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였다. 김정일이 자신에 대한 후계자 결정이 지속적으로 보류되는 상황을 목도(目睹)하면서, 아버지가 이복동생 김평일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계자 물망에 오른 김영주나 혁명1세대 주요 인물들이 후계세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면 김평일로의 세습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후계자 결정 이후 김정일이 ‘결가지’를 철저히 배제시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 조직지도부장 겸 조직비서, 선전선동부장 겸 사상비서를 맡아 당의 실권을 장악하였고,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으로 선출되면서 후계자로 내정되었다. 후계경쟁구도의 무게추가 김정일에게 기운 이유로 갑산파와 군부강경파 숙청을 거치며 김정일 후계구도 형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던 점, 문화 예술 분야에서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 후계자 지위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삼촌 김영주의 건강 이상 및 계모 김성애의 추락을 들 수 있다.

특히, 김성애의 동생이었던 해군사령부 정치위원 김성갑의 비리문제로 촉발된 김성애의 추락을 계기로 김정일은 후계자 등극의 중요하고비를 넘겼다.³³⁾ 김성애와 관련된 단체와 조직들은 해체되거나 유명 무실해졌고, 신문과 잡지, 방송에서 김성애에 대한 언급은 자취를 감췄다.³⁴⁾ 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후 여맹 기관지 『조선녀성』을 중심으로 김정숙에 대한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³⁵⁾

후계자 내정 이후 김정일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다. 아버지의 권위에 편승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

켰던 사실을 떠올려볼 때, 김성애를 등에 업은 김평일의 존재는 김정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33)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291쪽.

34) 고영환, 『북한 외교관 고영환이 밝히는 평양25시』, 106~107쪽;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 102~103쪽.

35) 1974년 들어 여맹 기관지 『조선녀성』에서 김정숙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정태은, “김정숙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1963~2007년 『조선녀성』을 중심으로”(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1쪽 참조.

한 움직임의 이면에는 자신을 아버지와 같은 지위로 동일시함으로써 거세공포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려는 심리가 내제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를 자신에게 투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김정일을 지칭하는 ‘당중앙’ 호칭이 공개적으로 사용되었고, 『로동신문』 기사와 사설에서 수령의 교시와 더불어 당중앙의 호소와 지시를 받들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대를 이어 혁명위업을 완수하는 길임을 분명히 밝혔다.³⁶⁾

1974년 4월에는 김정일이 작성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이 발표되었다.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약칭)은 ‘수령절대주의’의 확립과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 중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계 구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수령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권위를 절대화하는 내용과 하위 수준의 현실 정책 문제들에 대한 김정일(당중앙)의 결정과 지도에 유일적 권위를 부여하는 내용 간에 논리적 정합성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1조 1항에서 대를 이어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당위적 원칙을 제시했다면, 10조 본문에서는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계 구축이 ‘필요조건’임을 밝히고 있다. 수령의 절대적 권위를 확립하는 과정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를 끼워 맞춤으로써 아버지의 권위에 성공적으로 편승하려 했다.³⁷⁾

36)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중앙의 호소를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사회주의 대건설사업에 총동원되자,” 『로동신문』, 1974년 2월 14일; “당중앙이 제기한 당생활총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로동신문』, 1974년 2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로동신문』, 1974년 4월 25일.

<표 2>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 중 유일적 지도체제 구축 관련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1조 1항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10조 본문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우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9조 2항	모든 사업을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체계에 의거하여 조직 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9조 9항	당의 유일사상체계와당의 유일적 지도체제에 어긋나는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 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10조 1항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령도밑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10조 3항~5항	3)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4)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9조 2항과 9항, 10조 1항은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 사이의 관계와 유일적 지도체제의 상대적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유일적 령도에 의해 다스려지는 추상적 수준의 ‘구조물(structure)’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북한사회 전체를

37) 김정일은 “당중앙의 의사는 수령님의 의사이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곧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령의 권위에 기대어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를 정당화하였다.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1974년 8월 2일),” 『김정일선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252쪽.

의미하며, 유일적 지도체제는 현실적, 정책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가 보장되는 ‘질서’나 ‘제도틀(system)’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수령 절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유일사상체계는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의 토대 위에 축성(築城)되는 사회전반의 ‘상부 구조’로서 ‘절대성’과 ‘무조건성’이 특징이다. 반면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는 유일사상체계를 떠받치는 ‘제도틀’로서 현실문제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특징을 지닌다. 북한체제를 결속하는 장치로서 당중앙의 지도와 명령은 수령의 교시와 령도와 버금가는 수준의 강제성을 행사할 수 있었다.

10조 3, 4, 5항은 당중앙의 지도와 권위에 대해 절대적으로 충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위해 대를 이어 복무하고 있는 당중앙의 권위를 수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다지고자 했다. 유일사상체계는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의 신념화를 바탕으로 이데올로기와 사회·문화적 정서까지도 유일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다. 반면에 유일적 지도체제는 이데올로기나 정서적 차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도와 명령 이행 절차 차원에서 당중앙의 권위를 수령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대를 이은 충성과 헌신을 매개로 당중앙의 권위를 수령의 권위와 상당 수준까지 동일시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력기반을 구축하려 했다.

김정일은 당·군·정을 제도적으로 장악해 나감으로써 북한사회 전반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정착시키려 했다. 먼저, 당내 유일적 지도체제 구축을 위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지방지도과 책임지도원들을 한 달에 20일 이상 지방당 조직에 내려 보내 조직 실태를 파악하고 당중앙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당조직지도부 주도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재토의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당중앙의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지방당 조직의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사업체계를 세울 것을 당부하였다.³⁸⁾ 1974년 6월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재접수, 재토의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기관당총회와 세포총회를 먼저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조직지도부를 통해 당생활의 나태와 불성실 현상을 지적하는 통보서를 기관당총회와 세포총회까지 내려보내도록 함으로써 당의 최하부 단위까지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구축하려 했다.³⁹⁾

군대 내 유일적 지도체제 구축은 총정치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군부강경과 숙청 및 정치위원제의 실시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⁴⁰⁾ 이 과정에서 총정치국은 당조직지도부의 지도를 받게 되었고, 김정일은 당조직지도부와 총정치국 라인을 통해 인민군대 내부에 정치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74년 후반에는 당조직지도부의 주도 하에 인민군 당위원회와 총정치국, 각급 부대 단위의 당위원회 및 당세포에까지 ‘10대원칙 재토의사업그루뵘’이 파견되어 유일사상체계 및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였다.⁴¹⁾ 1975년 1월 1일에는 총정치국 책임일군들에게 “전군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여야 하며 당중앙의 명령, 지

38)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르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74년 2월 28일),” 『김정일선집』, 제6권, 109~124쪽.

39) 김정일, “현시기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도당위원회 조직비서, 정무원위원회, 부당비서 협의회에서 한 연설(1974년 6월 22일),” 『김정일선집』, 제6권, 236~237쪽.

40) 고명균,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당·군 관계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8권 3호(2015), 46쪽.

41)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간부정책을 중심으로』, 127쪽.

시를 무조건 관철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에서 총정치국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하였다.⁴²⁾ 1975년부터 인민군전 부대 병영에 김일성과 함께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리게 되었고, 인민군대 내 신문과 방송에서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와 선전이 집중되었다.⁴³⁾

정권기관에 대해서는 정무원 및 각 부서 내 당위원회 및 당지도위원회의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일적 지도체제가 구축되었다. 정무원 위원회 및 부서 일군들의 당조직생활 지도 강화, 정무원 위원회와 부당지도위원회 사업개선을 위한 운영지도서 제작 등의 과업들을 당조직지도부의 주도하에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⁴⁴⁾ 정무원 산하 부서 당위원회는 정무원 당위원회와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이중통제를 받게 됐으며, 정무원 및 부서 당위원회 소속 당원들은 자신의 속한 지역당으로 부터 사상 및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받게 되었다. 1975년 중반에는 정무원과 정부기관에 대한 ‘10대원칙 채택의사업’이 진행되었고, 정무원 내 당조직들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정권기관 내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이 본격화되었다.⁴⁵⁾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김정일은 자신의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권위에 기댔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헌신하는 당중앙

42) 김정일,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5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73~77쪽.

43) 최주환, “북한체제에서의 당-군 관계 연구”(서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82쪽.

44) 김정일, “현시기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6권, 242~243쪽.

45)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간부정책을 중심으로』, 129~130쪽.

의 역할을 상징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수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다. 하지만 특정 국면에서 김정일의 동일시 과정은 ‘수령절대주의 가치체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보다 아버지의 권위를 대체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계세습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단서가 ‘김동규 사건’이다. 다음 절에서는 ‘복합체의 잔존과 행동수정 단계’로서, 1976년 중반 이후 불거진 김정일 후계체제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 후계체제의 위기와 위기 극복: 복합체의 잔존과 행동수정 단계

1) ‘김동규 사건’의 재고(再考)

‘김동규 사건’은 1980년대 초 북한에서 망명한 신경완(본명 박병엽)의 증언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⁴⁶⁾ 신경완은 1976년 6월 당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부주석 김동규를 필두로 총정치국장 리용무,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유장식, 검열위원회 위원장 지경수,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김정일의 ‘간부정책’, ‘계급정책’, ‘후계체제 확립과정의 문제’에 대하여 호되게 비판했다고 증언하였다.⁴⁷⁾

46) 신경완, “결에서 본 김정일(上),” 『월간중앙』, 6월호(1991), 404쪽.

47) 간부정책에 대해 노간부의 퇴진과 젊은 간부로의 교체가 과도하다는 점, 계급정책에 대해 노동계급에 비해 항일혁명열사 가족들을 지나치게 예우한다는 점, 후계체제 확립 과정에서의 속도문제 등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292쪽.

당시 북한 내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증언의 진위(眞僞)는 대체적으로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사건 이후 김정일에 대한 당중앙 호칭이 사라졌고, 김정일의 공식활동도 줄어들었다. 군에 대한 김정일의 개입과 언급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김동규 사건으로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의 속도조절 문제가 제기되자 항일빨치산 원로들의 표현과 입장에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1975년 10월호 『근로자』에 실린 오진우, 서철, 립춘추의 논문⁴⁸⁾과 1977년 4월호 『근로자』에 실린 이들의 논문⁴⁹⁾을 비교해보면, 사건 이후 당중앙에 대한 언급과 유일적 지도체제 구축에 대한 강조가 자취를 감춘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⁰⁾ 수령의 령도와 당중앙의 지도를 함께 강조해왔던 내용이 오직 수령의 령도와 교시만으로 구성되었다. 당중앙에 의해 추진되었던 당사업 결정과 지침 등에 대한 언급이 배제됨에 따라 논문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추상성이 강화되었다.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항일빨치산 원로들의 입장이 김일성의 의중

48) 오진우,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인 당이다,” 『근로자』, 제10호(1975), 22~31쪽; 서철,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전투적인 당이다,” 32~40쪽; 립춘추,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다,” 88~95쪽.

49) 오진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시며 최고사령관이시다,” 『근로자』, 제4호(1977), 31~40쪽; 립춘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불멸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전설적영웅이시다,” 41~50쪽; 서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끊임없이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의 예술가이시다,” 64~75쪽.

50) 특히 오진우, 립춘추는 훗날 김일성이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의 1등 공신이라 치켜세운 인물들이었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310쪽.

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신경완의 증언을 토대로, 많은 연구들이 1976년 당시 김정일 후계 체제 구축과정을 둘러싸고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갈등이 터져 나왔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 후계체제를 굳게 지지하는 김일성과 항일빨치산 원로들에 의해 김동규를 비롯한 저항세력이 무력화되었고, 김정일에게는 잠시 지숙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판단하였다.⁵¹⁾ 하지만 김동규 사건을 불만세력의 반발과 저항으로 보는 관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첫째, 부주석 김동규가 위험을 무릅쓰고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비판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재하다. 당시 북한은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적 지도체제가 확립되어 가는 와중이었고,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비판은 자칫 수령의 유일사상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비취질 소지가 농후했다. 게다가 김동규는 혁명1세대로서 유일사상체제 및 유일적 지도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⁵²⁾ 김정일의 간부정책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령의 허락 없이 후계자에게 도전할 정도로 막무가내의 위인(爲人)은 아니었다.

둘째, 김동규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사들이 숙청당하기까지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건 직후

51) 스텝키 마사유키(鐸木昌之) 지음,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 옮김(서울: 중앙일보사, 1994), 134~135쪽;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김정일』, 112~120쪽;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292~294쪽.

52) 김동규는 1975년 10월호 『근로자』에 발표한 논문에서 당중앙이 제시한 ‘은사회의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 방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합법칙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동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혁명위업,” 『근로자』, 제10호(1975), 12쪽.

김동규와 주요 인사들이 보위부에 불려가 사상검토를 받았고, 철직되어 신골로 축출되거나 특수교양소에 감금되는 등 대거 숙청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철직 후 숙청되었다는 김동규의 행적은 1976년 6월 이후에도 자주 포착되었다. 1976년 8월 15일자 『로동신문』에는 14일에 정무원 총리 박성철을 단장으로하고 부주석 김동규도 포함된 대표단이 ‘빨럭불가담 운동회의’ 참석차 스리랑카로 출국한 사실이 보도되었고, 8월 22일자 귀국보도에도 김동규가 언급되었다. 1977년 1월 30일자 『로동신문』에는 김동규 부주석에게 꾸바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가 신임장을 드렸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외에도 1977년도 부주석 김동규의 주요활동 내용이 10월 전까지 『로동신문』에 꾸준히 보도되었다.⁵³⁾ 1976년 6월 정치위원회에서 김정일 후계체제를 비판한 후에도 1년 넘게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것이다.

김일성은 왜 물의를 빚은 김동규를 즉각 철직시키지 않고 계속 부주석 직무를 수행하도록 묵인했을까? 이종석은 김일성이 김동규의 비판을 받아들여 김정일을 지속시켰다고 보았다. 김동규의 일리 있는 비판에 김일성이 수긍했다는 것이다.⁵⁴⁾ 그러나 1977년 가을 김동규가 숙청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김동규가 후계체제 구축과정을 비판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이듬해 갑작스럽게 숙청당한 이유를 개연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5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무으시고 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창건 45돛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김동규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77년 4월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 승리 40돛 기념보고대회에서 한 김동규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77년 6월 5일; “김동규부주석이 의례방문하여온 소말리아민주주의 동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만났다,” 『로동신문』, 1977년 6월 30일; “김동규부주석에게 뉘니지공화국 첫 신임특명전권대사가 신임장을 드렸다,” 『로동신문』, 1977년 9월 29일.

54)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506~507쪽.

김동규가 김일성의 충실한 심복이었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김동규의 ‘건재’와 ‘속칭’의 결정은 김일성의 의중에 달려 있었다.

셋째, 총정치국장 리용무의 입장과 행적에 대한 증언의 부정확성 문제이다. 총정치국장 리용무가 김동규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찬동했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증언과 연구들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리용무가 김정일의 최측근이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총정치국장 리용무는 군대 내 유일적 지도체제 구축 과업을 담당하였던 최고 책임자였다. 1975년 2월호 『근로자』에 실린 논문에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과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 방침’을 정력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문하였다.⁵⁵⁾ 1976년 2월호의 논문에서는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들어 전당과 전민을 확고히 이끌고 있는 당중앙의 역할과 업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깊은 찬사를 표하였다.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방침’, ‘속도전에 대한 사상과 방침’이 주체의 혁명위업 계승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안아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유일사상체계 구축의 실천적 차원에서 당중앙의 업적을 논문전체 지면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수령과 당중앙을 거의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⁵⁶⁾

항일빨치산 출신도 아니었고, 돈보일 만한 군공도 없었던 리용무가 쟁쟁한 혁명1세대들을 제치고 총정치국장에 오른 데에는 그가 보여준 김정일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55) 리용무, “자위토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자,” 『근로자』, 제2호(1975), 45~46쪽.

56) 리용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당의 혁명적방침은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기치,” 『근로자』, 제2호(1976), 9~17쪽.

당시 총정치국은 김정일이 장악하고 있었고, 군대 내 김정일 후계체제 및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 구축을 위한 사상교양 및 정치사업을 주도하였다.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은 수기에서 리용무가 김정일의 최측근이었다고 밝히며, 1976년 5월 10일 김정남의 생일 파티에도 축하객으로 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⁵⁷⁾ 최현과 오진우가 김일성을 수행했다면, 리용무는 김정일을 수행했다고 밝혔다.⁵⁸⁾ 북한군 상좌 출신 탈북자 최주환도 리용무에 대해 김정일의 최측근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리용무의 숙청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저지른 비리와 전횡 사실을 오진우가 김일성에게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⁵⁹⁾ 리용무가 김동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언은 단순한 기억의 착오이거나 김동규와 리용무가 비슷한 시기에 숙청됐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추론한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김동규와 리용무의 숙청 사이에 다른 차원의 관련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위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김동규 사건에 대한 관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김동규 사건은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불편해진 수령의 심기를 파악한 일부 인사들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self-coup)’로 볼 개연성이 큰 사건이다. ‘계급정책, 간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핵심이 아니라 ‘후계 속도의 조절’이 핵심이며, 권력 내부의 ‘주요 인사’들과 ‘후계자’의 대립이 아니라 ‘수령’과 ‘후계자’ 사이에 침전되어 있던 근원적 갈등

57) 이한영, 『김정일 로열패밀리』, 33~34쪽.

58) 위의 책, 70쪽.

59) 북한군 상좌 출신 탈북자 최주환은 리용무에 대해 그가 김정일의 최측근이었다고 밝혔다. 리용무의 숙청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저지른 비리와 전횡 사실을 오진우가 김일성에게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 최주환, “북한체제에서의 당-군 관계 연구,” 85~86쪽.

이 다시 터져 나온 사건이었다. 김동규 사건은 김정일이 정력적으로 추진하던 아버지와의 동일시 과정에 심한 균열을 일으켰다.

김동규 사건이 김일성의 의중을 반영한 친위쿠데타일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첫째,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후계자 내정 이후, 김정일이 당조직생활 지도 및 사상생활 지도, 하부 지도체계 정비, 각종 지도서 발간 문제까지 세세히 관여하면서 당에 대한 후계자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비대해졌다. 당의 주요 사업들은 김정일의 지시와 결정에 따라 추진되었고, 이것이 유일사상체제를 확고히 세우는 일로 칭송되었다. 당내 권력 지형이 김정일에게 지나치게 경도(傾倒)되는 현상에 대해, 김일성은 ‘당집행기관’의 ‘행정대행주의’와 ‘행정식방법’, ‘당세도’를 집중 비판함으로써 제동을 걸었다.⁶⁰⁾

유일적 지도체제의 구축으로 중앙당에서부터 하부단위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당비서나 당전문부서의 월권적 행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김정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당선전선동부에 대한 사업지도를 통해 행정대행 및 당세도를 없애고자 노력하였다.⁶¹⁾ 이런 사정을 알고 있

60) 후계자 내정 이전에도 당조직의 행정대행 및 행정식 방법에 대한 지적은 종종 있었다. 1974년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일군’들을 체쳐놓고 모든 사업을 대행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간단히 언급한 내용이 1975년 들어서는 ‘행정대행주의’와 ‘행정식방법’, ‘당세도’라는 문제적 용어로 집중 비판받았다. 김일성,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당조직일군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1974.7.31),” 『김일성저작집』, 제2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391~393쪽; 김일성,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75.2.17),” 『김일성저작집』, 제3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62~65쪽.

61) 김정일, “선전선동부의 기본임무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

있을 김일성이 김정일의 당내 위신(威信)을 고려해 비밀스럽게 언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비서국회의와 부장협의회를 거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당사업 및 당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발언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체감한 김일성이 후계자가 주도한 당사업의 부작용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해보려 했다고 볼 수 있다. 1975년 초에 집중되었던 김일성의 비판은 김정일의 적극적인 대응 이후 누그러졌다.

김정일은 행정대행 및 행정식방법에 대한 김일성의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당사업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았다. 연설의 한 장을 ‘행정대행주의와 행정식방법의 문제’에 할애할 정도로 수령의 지적에 충실히 대응했다.⁶²⁾ 후계체제의 구축과정이 수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인상을 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권력 내부에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전당·전군·전국의 모든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이 파악할 수 있도록 당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보고·통보체계가 조직되었다.⁶³⁾ 김정일로의 빠른 권력 이양은 김일성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켰고, 후계속도 조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도록 만들었다. 후계체제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지만 후계속도

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73.8.17),” 『김정일선집』, 제5권, 418~419쪽; 김정일,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방지도과책임지도원협의회에서 한 연설(1973.11.8),” 470~471쪽; 김정일, “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연설(1974.2.19),” 『김정일선집』, 제6권, 85~86쪽.

62) 김정일, “당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며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75.1.28),” 『김정일선집』, 제7권, 101~110쪽.

63)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165쪽.

를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자 했다.

둘째, 김정일 후계체제를 비판한 김동규가 부주석 직에 1년이나 유임되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앞서 밝힌 대로 부주석 김동규가 독자적인 판단하에 김정일 후계체제에 반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그렇다면 하더라도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 비판을 가한 김동규의 직위를 1년 이상 유지시키며 수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도록 놔두었을 리 만무하다. 수령의 유일사상체제는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더욱 확고히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의 핵심 논리였다. 유일적 지도체제에 대한 비판은 유일사상체제에 대한 반발과 다름없었다. 김동규의 부주석 유임은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적 지도체제를 동일시하고자 했던 김정일의 노력이 김일성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유일적 지도체제의 구축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권력이 이양되는 것에 대해 김일성은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다. 김일성은 자신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충실히 실행한 김동규를 유임시킴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속도를 조절하고자 했다.

1976년 8월 18일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김동규 사건으로 난처해진 김정일을 더 큰 곤경에 빠뜨렸다. 당시 조선인민군 내 보고체계는 수령에 직접 보고하지 않고, 김정일을 반드시 거치도록 조직되어 있었다.⁶⁴⁾ 8월 18일 오전 판문점에서 유엔군의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 소식은 군 정치부, 보위부 계선을 통해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되었다.⁶⁵⁾ 판문점 내 북한군의 대응이 짧은 시간 사이에 급변

64) 최주환, “김정일 30년 노력 끝에 군부 완전 장악,” 『월간 WIN』, 6월호(1996), 163~164쪽.

65) 조선로동당 간부 출신 탈북인사 박병엽에 따르면, 김정일은 판문점 미루나무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일이 판문점에서의 폭력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⁶⁶⁾ 당시 판문점에서 남북 간 무력충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고, 북한 측 소대장 박철이 매우 호전적인 성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군 장교의 살해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인다.⁶⁷⁾ 사건 당시 북한주재 동독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보고서에서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사건이라기보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과잉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⁶⁸⁾ 무력 대응에 대한 김정일의 적극적 방조(傍助)와 판문점 경비병들의 우발적 대응이 미군 장교 살해라는 비극적 결과를 낳은 것이다.

김일성은 8월 21일 판문점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도끼만행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이 담긴 메시지를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냈다.⁶⁹⁾ 김정일의 판단 착오는 수령의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북한의 대외 활동은 위축되었고, 국제사회에서 위신도 크게 추락하였다.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대규모 참가단을 보내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던 외교적 노력은 판문점 도끼만

가지치기 소식을 직보받고, 무력행사를 통해 이를 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다만 총은 쏘지 말고, 미군만을 겨냥할 것을 함께 지시하였다.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81쪽.

66) 가지치기 작업은 북측의 묵인하에 비교적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불과 20여 분 후, 상부의 지시를 받은 북한군의 방해로 상황은 급격히 위태로워졌다.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지음,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이원경 옮김(파주: 한울, 2013), 143쪽.

67) 위의 책, 163~168쪽.

68) “Report on the ‘Axe Murder Incident’ from the GDR Embassy in North Korea” (August 31, 1976),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291>(검색일: 2016년 10월 10일).

69) 남북회담본부, “남북대화,” 제11호(1976.3~1976.11), 31~32쪽.

행사건으로 빛을 바랬다.⁷⁰⁾

판문점에서 북한군의 무력행사로 벌어진 미국과의 대치국면이 전쟁위기 상황으로 번지자, 김정일은 평양주민들을 대규모 소개(疏開) 조치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고, 전당, 전군, 전민의 일치단결된 모습을 펼쳐 보임으로써 지난 과오를 씻어내고자 했다. 장성택의 실무지휘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주도로 약 세 달 동안 20여만 명의 평양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었고, 황해도와 강원도의 전연지대에 거주하는 성분불량자 가구 8천여 세대도 후방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무리하게 추진된 주민 소개사업으로 불만이 높아지자, 김일성은 소개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책임자들을 문책하였다.⁷¹⁾ 과오를 만회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도리어 스스로에게 울가미를 씌운 격이었다.

아버지와의 동일시 과정에서 나타난 불협화음은 후계자 내정 이전에 겪었던 거세공포와는 다른 차원의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후계자 지위 박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아버지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내면에 자리 잡았다. 김정일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성공적으로 극복되지 못한 채, 초기의 거세공포보다는 다소 완화된 ‘위기의식’의 형태로 다시 부유(浮游)했다.

2) 김정일의 위기 극복 과정

김동규 사건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후계자 김정일의 위상과 역할을 상당부분 위축시켰지만 후계구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70) 미치시타 나루시게 지음,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169~174쪽.

71)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82쪽.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주체혁명’의 계승자로서 정통성을 이미 인정 받았고,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가 북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던 상황에서 김정일을 대체할 만한 인물도 보이지 않았다.⁷²⁾ 김정일 후계구축과정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후계자의 과오에 대해 지나치게 흠집을 낼 경우, 유일사상체계의 하부 토대가 훼손될 소지가 농후했다.

김일성의 입장에서 후계자의 교체보다는 권력승계 속도의 완급조절이 필요했다. 지속과정 속에서 김정일의 위상이 지나치게 추락하는 것은 피하려 했다. 1976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12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 ‘영명한 지도자’로 언급되었던 것,⁷³⁾ 1976년 10월 22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의 연설에서 김정일이 당내 순결성을 언급하며 ‘혁명위업의 대를 이은 계승’을 강조한 사실⁷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정일이 지속하는 와중에도 후계자로서 지위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김정일은 그동안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역할들을 축소하고, 수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행동들을 수정했다. 김정일의 위기 극복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김정일은 지속기간 동안 철저한 ‘몸 사리기’ 행보를 취했다. 지속기간 김정일은 김일성의 심기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삼갔다. 김정일을 칭하던 ‘당중앙’ 호칭이 사라졌고, 김정일의 공식 활동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군에 대한 김정일의 공개적인 개입과 언급도 급격히 감소했다.⁷⁵⁾

72)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278~291쪽.

73) 위의 책, 268쪽.

74) 김정일,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대를 이어 견결히 수호하자 (1976.10.22),” 『김정일선집』, 제7권, 498~499쪽.

1974년 2월 후계자 내정 이후 1976년 중엽까지 김정일은 북한의 당과 군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체육, 보건, 농업, 근로단체, 사회주의 청년동맹 등 사회 전반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를 관철시켜 왔다. 그러나 김동규 사건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김정일의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었다. ‘수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계 구축’ 사이의 일체성과 통일성을 강조해왔던 기존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었다.

당, 정, 군 부문별 세부사안에 대한 당중앙의 교시와 결정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자신의 핵심 권력기반이었던 당선선전동부와 조직지도부에서의 연설과 담화가 대부분이었다. 이마저도 수령이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수령의 혁명전통을 유지, 계승하기 위한 사업하달이 주였다.⁷⁶⁾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핵심을 이뤘고, 수령의 혁명전통과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후계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거나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인 반면, 수령에 대해서는 충성심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75) 1992년부터 발간된 『김정일선집』 초판에는 1976년 말부터 1979년 초까지 군에 대한 연설, 교시, 담화 등의 내용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2011년 이후 발간된 『김정일선집』 증보판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김정일의 군 관련 연설과 담화가 대거 포함되었다. 지속기간 동안 김정일이 군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76) 김정일, “당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없앨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77.1.14),” 『김정일선집』, 제8권, 20~37쪽; 김정일,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77.4.11),” 71~77쪽; 김정일,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도, 시, 군당 조직비서, 조직부장들을 위한 강습회참가자들 앞에서 한 연설(1977.8.16),” 109~116쪽.

둘째, 자숙기간에도 자신의 핵심 권력기반인 당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김정일은 당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통해 당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하달하였다. 김정일은 선전선동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사상사업에 대해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를 따르는 ‘당의 유일관리제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⁷⁷⁾ 사상사업의 내용면에서는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를 따르되, 방법과 형식면에서는 대상의 특징에 맞게 여러 방법을 적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 구축을 당, 정, 군 모든 사업의 핵심 실행 과제로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없었다 하더라도 선전선동부의 당사상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인민군 총정치국을 통해서는 군내 정치사업에 대한 지침들을 꾸준히 하달하였다. 인민군 전연부대의 사상교양사업에 대한 지침 하달, 당정치사업에서 형식주의의 타파 및 ‘항일유격대식정치사업방법’의 실행,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 및 참관사업 등을 지시하였다.⁷⁸⁾ 수령의 교시와 혁명전통 선전에 적극 호응하는 내용이 주였다 하더라도, 총정치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는 여전히 김정일이 수행하고 있었다. 수령의 심기를 살피 철저히 몸을 사리면서도, 당과

77) 김정일,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사이에 배합작전을 잘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77.2.1),” 46~47쪽.

78) 김정일, “전연부대 군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과 한 담화(1977.1.8),” 7~12쪽; 김정일, “항일유격대식정치사업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과 한 담화(1977.1.9),” 13~19쪽; 김정일, “보천보전투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7.6.4),” 78~82쪽.

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영향력 행사는 지속되었다.

앞에 기술한 두 가지가 위기극복을 위한 김정일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면, 세 번째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위기 극복에 유리한 대내외적 상황 조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대외적으로 중국의 ‘수정주의’가 강화되었고,⁷⁹⁾ ‘한미 팀스피릿 훈련’이 실시되는 등 북한의 고립감과 위기의식은 고조되었다. 대외적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 ‘체제결속’은 절체절명의 과제였고, 이를 위해 유일사상체제의 지속적 강화 사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었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군사모험주의에 입각한 군사도발은 한동안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유일사상체제 확립의 최선봉에서 당의 조직지도 및 선전사업을 이끌어 온 김정일의 능력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김정일은 1978년 1월 1일 연설에서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의 수정주의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⁸⁰⁾ 김정일이 강조한 자력갱생의 혁명원칙은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로 정리되었고,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방침으로 자리 잡았다.⁸¹⁾

79) 1977년에 등소평이 정치무대에 복귀하였고, 1978년에는 실용주의적 개혁·개방 노선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1979년에는 미국, 일본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다.

80) 김정일, “자력갱생의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켜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78.1.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2~3쪽.

81) 김정일,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8.12.25),” 『김정일선집』, 제8권, 410쪽.

대내적으로 1978년부터 ‘제2차7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행정,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는 더욱 절실했다. 김일성은 당책 임일군들의 정치적 지도와 검열을 통해 경제사업에서의 행정식방법과 행정대행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제2차7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전 당원과 근로자가 “수령과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하였다”라고 상찬(賞讚)하며, 당선전사업 및 정치지도, 유일사상체계 구축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김정일의 존재감을 확인해주었다.⁸²⁾ 경제사업에 대한 수령의 령도와 교시가 사회 각 부문에 빠른 속도로 파급되는 데에는 뛰어난 선전선동능력과 관리감독능력을 갖춘 김정일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였고, 선전선동 및 대중동원의 일환으로 ‘100일 전투’를 주도하였다.⁸³⁾

한편, 1977년 말에 부주석 김동규를 비롯한 후계체제 비판 연루자들이 숙청되면서 후계자 김정일의 위상회복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김정일의 최측근이자 군부 내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의 실무책임자인 총정치국장 리용무를 함께 숙청하였다. 리용무의 개인적 비리와 전횡이 숙청의 주된 이유라는 최주환의 언급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숙청의 정치적 의미는 리용무 개인의 차원

82) 김일성,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 한 연설(1978.1.28),” 『김일성저작집』, 제3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42쪽.

83) 김정일, “전당이 동원되어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도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1978.5.29),” 『김정일선집』, 제8권, 270~282쪽; 김정일, “당안에 혁명적규율을 세우며 사회주의경제건설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8.7.13),” 326~328쪽.

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과정을 비판한 김동규와 김정일의 최측근 리용무가 비슷한 시기에 숙청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가 굳건함을 선언하는 효과와 김일성의 견재함을 알리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⁸⁴⁾ 리용무 후임 총정치국장으로 동북항일연군 출신이자 김일성의 최측근이었던 서철이 임명되었다. 리용무의 숙청은 김정일에게 뼈아픈 손실이었지만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는 수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⁸⁵⁾

대내외적 상황 변화와 김정일의 조심스러운 행보에 김일성의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다. 1977년 들어 김정일 후계체제에 드리웠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당사상사업에서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당의 유일관리제’ 원칙이 강조되었다.⁸⁶⁾ 김정일의 연설에서 간간이 등장하던 ‘당중앙’과 ‘유일적 지도’라는 표현이 1978년 말에는 연설 전면에서 다시 등장하였고,⁸⁷⁾ 1979년 12월에 김일

84) 총정치국장 리용무 숙청의 전(前)조치로 총정치국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조치가 김일성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총정치국을 도당위원회와 같은 위치에 놓고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총정치국 일군들의 당조직생활을 철저히 장악, 통제하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당조직지도부에 지도과를 따로 내어 총정치국의 당조직생활을 장악, 통제하도록 조치하였다. 김정일은 총정치국의 결함에 대한 수령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수령님식사업방법’대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일군이 되자—도당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회의에서 한 연설(1977.8.20),” 『김정일선집』,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463~464쪽; 김정일, “현시기 인민군대당정치사업에 나서는 몇가지 문제—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과 한 담화(1977.8.29),” 『김정일선집』, 제8권, 131쪽.

85) 양강도 입산사업소 부지배인으로 쫓겨났던 리용무는 1989년에 복권되었다. 반면에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해 비판한 김동규 등 관련자들은 숙청 이후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주환, “북한체제에서의 당-군 관계 연구,” 86쪽.

86) 김정일,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사이에 배합작전을 잘할때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7권 46~47쪽.

성 훈장 1호를 수여받음으로써 명실상부 ‘수령의 후계자’로서 위상을 완전히 회복하였다.⁸⁸⁾

군에 대한 영향력도 회복하기 시작했다. 1977년 8월에는 수령의 교시에 따라 군정치사업에서 ‘당의 유일적지도체계’를 확고히 세울 것을 주문하였다.⁸⁹⁾ 그동안 2월 8일이었던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 김정일의 주도하에 1978년부터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⁹⁰⁾ 4월 25일은 김일성이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한 날로, 조선인민군을 수령의 군대로 확실히 명토 박음으로써 아버지의 환심을 사려는 김정일의 계산된 행동이었다. 1979년 2월에는 조선인민군 군단, 사단 정치부 선전선동부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당의 ‘유일관리제’ 원칙을 군에도 적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더불어 군대내 정치사상사업을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⁹¹⁾ 12월에 열린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제6기 제20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인민군대에 김정일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도록 지시하였다.⁹²⁾ 1979년을 기점으로 김정일은 적극적으로 군의 정치사업을 지도해나갔다.⁹³⁾

87) 김정일,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8.12.25),” 419~420쪽.

88)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194쪽.

89) 김정일, “현시기 인민군대당정치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7.8.29),” 『김정일선집』, 제8권, 128~129쪽.

90)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298쪽.

91) 김정일, “인민군대안의 선전선동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인민군 군단(군중, 병중), 사(려)단 정치부 선전선동부장회의 및 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1979.2.14.),” 『김정일선집』, 제8권, 463~465쪽.

92)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9—주체형의 혁명무력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27쪽.

93)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127쪽.

후계체제의 위기 국면에서 김정일은 철저히 자신을 낮췄다. 그러면
서도 자신의 권력기반이었던 당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인민군 총
정치국에 대한 영향력은 꾸준히 유지하였다. 이미 거세공포를 겪었던
김정일은 보다 노련하게 위기를 헤쳐나갔다. 김일성은 대내외적 상황
변화 속에서 후계자 김정일이 수행해온 역할의 중요성을 각인하였다.
비운 뒤에 땅이 굳듯이, 위기를 극복한 김정일은 1980년 10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수령의 후계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4. 결론

197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다. 후계자 결
정 단계부터 복수의 경쟁자들 사이에서 거세공포를 겪었고, 후계자
내정 이후에는 후계체제 구축의 속도 문제로 김일성의 견제를 받았
다. 김정일 후계체제가 위기를 겪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살아
있는’ 권력을 떼어내야 후계체제가 자리할 수 있다는 ‘잔인한 운명’
으로부터 기인한다. 김정일은 ‘정치적 성장기’ 내내 잔인한 운명에
시달렸다.

본 연구는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된 김정일의 정치적 성장과정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현과 극복과정에 접목시켜 살펴보았다. 오
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현에서 극복까지의 과정을 ① 친모성애 단계,
② 거세공포와 양가감정 단계, ③ 동일시를 통한 가치 내면화 단계,
④ 콤플렉스의 잔존과 행동수정 단계로 구분하였다. 김정일이 후계자
로 내정되기 전부터 후계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까지 과정을 각 단
계별로 구분하여 역사적으로 기술하였다.

‘친모성애 단계’에 김정일은 친모 김정숙과의 동일시 정서를 강화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계모 김성애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김정일에게 친모 김정숙은 외롭고 불안한 자신의 처지를 위로해주는 나르시시즘의 원천이었다. 자신과 김정숙을 동일시함으로써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었고, 항일빨치산 원로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거세공포와 양가감정 단계’에서 김정일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본격적으로 발현되었다. 김정일은 계모 김성애의 견제를 받고 있었고, 삼촌 김영주, 이복동생 김평일과의 후계경쟁구도 속에 놓여있었다. 후계경쟁구도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거세공포’와 후계자 결정 권한을 가진 아버지에 대해 존경과 두려움의 ‘양가감정’을 겪으며 수령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였고, 스스로를 일치시켰다. 김정일은 후계자 지위를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동일시를 통한 가치 내면화 단계’에서 김정일은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통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했다. 북한 체제 전 분야에 ‘유일사상체제’ 확립을 주도하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유일적 지도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통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극복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수령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구축하려는 김정일의 동일시 노력은 의도치 않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던 것이 김일성의 심기를 건드렸다. 김정일의 동일시 노력은 수령중심의 가치체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보다 아버지의 권위를 대체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부주석 김동규를 주축으로 김일성의 불편한 의중을 파악한 일

부 인사들이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콤플렉스의 잔존과 행동수정 단계’에서 김정일은 후계체제에 드리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김동규 사건’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촉발된 후계체제의 위기로 김정일은 불가피하게 자숙시간을 갖게 되었다. 자숙기간 동안 김정일은 철저히 자신을 낮췄다. 수령의 령도와 교시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수령의 혁명전통을 고양시키는 데 몰두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권력기반이었던 당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한 영향력은 유지하였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수정주의가 강화되었고, 대내적으로는 제2차7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김정일의 역할이 절실해졌다. 김일성은 대내외적 상황 변화 속에서 후계자 김정일이 수행해 온 당적 지도의 중요성을 각인하였다. 당선전사업과 군정치사업을 중심으로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당의 유일관리제’ 원칙이 강조되었다. 김정일을 지칭하는 ‘당중앙’과 ‘유일적 지도’라는 표현이 연설 전면에서 다시 등장하였고, 김일성 훈장 1호를 수여받는 등 수령의 후계자로서 위상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김정일의 노련한 대응과 유리하게 조성된 대내외 상황은 김정일의 후계자 위상 회복 및 역할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본 연구는 1970년대 북한의 후계세습을 김정일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발현, 극복과정과 결부지어 분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간 ‘권력분점’ 및 ‘권력이양’ 과정에서 나타난 불협화음들의 근원에 김정일이 지닌 ‘거세공포’와 이를 극복하려는 ‘동일시 노력’이 자리하고 있음을 밝혔다. 1970년대 후반의 위기 상황을 영민하게 극복한 김정일이 더욱 가팔라지는

1980년대 권력이양구도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나
갔는지,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추
후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한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4월 8일 / 채택: 4월 10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김명화 외,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3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_____, 『김일성저작집』, 제3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세기와 더불어』,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김정일선집』, 제4~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 _____, 『김정일선집』, 제7~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 _____,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외국문출판사, 『위인 김정일』(평양: 외국문출판사, 2012).
-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9 - 주체형의 혁명무력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2) 논문

- 김동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혁명위업,” 『근로자』, 제10호(1975).
- 리용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당의 혁명적방침은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기치,” 『근로자』, 제2호(1976).
- _____, “자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자,” 『근로자』, 제2호(1975).
- 림춘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불멸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전설적영웅이시다,” 『근로자』, 제4호(1977).
- _____,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다,” 『근로자』, 제10호(1975).

서 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끊임없이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의 예술가이시다,” 『근로자』, 제4호(1977).

_____,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전투적인 당이다,” 『근로자』, 제10호(1975).

오진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시며 최고사령관이시다,” 『근로자』, 제4호(1977).

_____,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 당이다,” 『근로자』, 제10호(1975).

3) 신문

『로동신문』, 1969년 9월 22일.

_____, 1969년 10월 1일.

_____, 1969년 12월 24일.

_____, 1974년 2월 14일.

_____, 1974년 2월 16일.

_____, 1974년 4월 25일.

_____, 1976년 8월 15일.

_____, 1976년 8월 22일.

_____, 1977년 4월 25일.

_____, 1977년 6월 5일.

_____, 1977년 6월 30일.

_____, 1977년 9월 29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고영환, 『북한 외교관 고영환이 밝히는 평양25시』(서울: 고려원, 1992).

고유환 외, 『북한 언론 현황과 기능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김 석, 『프로이트 & 라캉 무의식에로의 초대』(파주: 김영사, 2010).

도널드 그래그(Gregg Donald), 『역사의 파편들』, 차미레 옮김(파주: 창비, 2015).

-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徳成),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이원경 옮김(과주: 한울, 2013).
-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성혜량, 『등나무집』(서울: 지식나라, 2000).
- 송봉선, 『김정일과 후계』(서울: 한국교육문화원, 2008).
-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 옮김(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과주: 한울아카데미, 2003).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이한영, 『김정일 로열패밀리』(서울: 시대정신, 2004).
-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서울: 선인, 2005).
-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서울: 토지, 1999).
- _____,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서울: 선인, 2011).
- 조영환,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서울: 지식공작소, 1996).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김정일』(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후계자문제와 조선』(도쿄: 구월서방, 1991).
- 최진옥, 『김정일정권과 한반도장래』(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5).
- 프로이트(Freud Sigmund), 『꿈의 해석 上』, 김정일 옮김(서울: 열린책들, 2000).
- _____,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 옮김(서울: 열린책들, 2002).
- _____, 『쾌락 원칙을 넘어서』, 박찬부 옮김(서울: 열린책들, 1998).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간부정책을 중심으로』(서울: 선인, 2007).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시대정신, 2006).

2) 논문

- 고명균,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당·군 관계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8권 3호(2015).
- 박찬부, “오이디푸스를 넘어서-프로이트에서 라깡으로,” 『비평과 이론』, 제12권 1호(2007).

정지은, “철학자-남성의 정체성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재해석,” 『한국라깅
과현대정신분석학회』, 17권 2호(2015).

정태은, “김정숙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1963~2007년 『조선여성』을 중심으로”(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최주환, “북한체제에서의 당-군 관계 연구”(서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 신문 및 잡지

신경완, “결에서 본 김정일(上),” 『월간중앙』, 1991년 6월호.

최주환, “김정일 30년 노력 끝에 군부 완전 장악,” 『월간 WIN』, 1996년 6월호.

3. 국외 인터넷 자료

“Report on the ‘Axe Murder Incident’ from the GDR Embassy in North Korea”
(August 31, 1976),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291>.

Kim Jong Il's Oedipus Complex And the Crisis of the Succession System

Koh, Myeong Gyun(Daeshin Middle School)

The Kim Jong Il succession system was not stable in the 1970s. From the stage of determining a successor Kim Jong Il suffered castration fear between the rivals. After Kim Jong Il was nominated for the Suryoung's successor, Kim Il Sung kept looking out him due to a problem concerning the speed of establishing the succession system. The Identification process with his father for power expansion as a successor was not smooth enough. The vice-president Kim Dong-kyu criticized the Kim Jong Il succession system building process officially. The Kim Dong-kyu incident was self-coup to keep the excessive power expansion of the successor in check. After that, Kim Jung-il remained calm and the status and role as a successor was somewhat constricted. But his self-restraint was not long. The domestic and foreign changes of North Korea at the time needed Kim Jung Il's leadership. Kim Il Sung acknowledged the real worth of Kim Jong Il for strengthening system

solidarity and party guidance in economic construction. Kim Jung-il has maintained influence over the party and military during his self-restraint and skillfully overcome the crisis.

Keywords: Oedipus Complex, Castration Fear, Identification, Succession System,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Dang Jung Ang, Kim Dong-kyu Incident